

전일동향

전일대비 7.20원 상승한 1,410.10원에 마감

4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7.20원 상승한 1,410.1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5.20원 상승한 1,418.1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등에 급상승 출발했다. 오전장에서 당국의 미세 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 추정 물량 유입에 1,406원대로 후퇴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1,410원대 중반대로 반등했다. 이후 환율은 1,410원대 초반을 횡보하며, 1,410.1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2.7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0.32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18.10	1418.80	1406.10	1410.10	1413.00
	엔화	938.56	947.76	935.77	936.73	-
	유로화	1474.11	1490.82	1473.27	1482.42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54	-5.7	-13.42	-28.94
	결제환율(수입)	-1.21	-4.45	-11.44	-25.3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정치 혼란 지속에...1,41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4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10.10) 대비 2.80원 상승한 1,411.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정국 불안에 따른 외인 자금 이탈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등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화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국 불안에 따른 원화 자산에 대한 투심 약화는 외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미국 11월 ADP 민간고용이 전월비 14.6만명 증가로 예상치(15만명)를 하회하자,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기 조정 발언에 달러화는 약세폭을 축소했다. 금일 환율은 달러 약세에도 정치 혼란에 따른 외인 자금 이탈 등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계획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는 환율의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08.25 ~ 1419.25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079.6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80원 ↑
	■ 美 다우지수 : 45014.04, +308.51p(+0.6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6.3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97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